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급되는 전기 이륜차는 일반 31대, 우산승용 5대, 배달용 10대 등 총 46대다. 지원 금액은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30만원, 중형 및 기타형 최대 270만원, 대형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시민 또는 30일 이상 정읍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은 5대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30만원,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4년 5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고창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 및 측량에 착수했다.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북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총 5개지구로 1,209필지 약 67만1,852㎡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3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4월 19일로 사업지구가 전부 승인돼 사업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고창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합치에 대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방침이다. 신규 지적공부 작성사업은 불합치지를 해소해 토지의 가치 상승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개 지구 6508필지를 추진해 토지소유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군정 주요 현안사업 속도

김철태 부군수 주재 군정 현안사업 및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고창군이 5월1일까지 김철태 부군수 주재로 군정 현안사업과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고 23일 밝혔다.

현안사업 130건, 정점·갈등사업 등 17건에 대해 소관사업 팀장이 보고한 후 사업별 정점 및 해소방안, 향후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민선8기 고창군 핵심 전략사업인 △고창종합테마파크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조성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호남권 드론통합 지원센터 △사시사철 김치원료공급플랫폼 구축사업 등의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긴다.

특히 군민 맞춤형 생활여건 개선사업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고창 향운석 도서관 건립사업 △상하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작년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노을대교,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조성과 향후 염전부지 관광분야 민자유치와 연계하여 서해안권 생태관광 일번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은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의 주상복합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177억원의 대형사업인만큼 최적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공들이고 있다. 하반기 중 LH와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대산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이반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기숙사 건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지 확보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정점·갈등사업으로 분류하고, 위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필요 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신속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1회 실시하던 현안사업 보고회를 월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주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실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철태 부군수는 “고창군은 전북자치도 단단위 중 신속집행 대상액이 가장 많은 군”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진한 사업의 원인분석 등 지속적인 사업점검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제14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혁명 참여자·유족 명예 회복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여



정읍시가 제정·수상하는 동학농민혁명 대상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4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자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장을 역임하고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실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이뤄냄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가치를 드높이고, 이를 인류가 함

께 기억하고 보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은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적 혁명으로 위상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시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빛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4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은 5월 11일 개최되는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상패와 시상금 2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노인·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정읍시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확대 설치했다.

시는 시청 등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 7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동보장구는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활동을 돕는 전동기구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일컫는다.

설치 장소는 자체·뇌병변 장애인의 수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고

려해 시청을 비롯해 신대인읍·수성동·정우면·덕천면 행정복지센터와 샘골보건지소, 자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 등 7개소다.

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고, 외출시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확대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대 동시 충전이 가능하며 배터리 잔량에 따라 90분 이내 완충이 가능하다. 또한 바퀴 공기주입도 가능하며 충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충전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

하반기에는 동 지역으로 전면 확대해 행정복지센터마다 급속충전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노인·장애인 등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이동에 제약이 되는 각종 불편을 없애고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부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3일 부안군 하서면 청호수마을 관광거점센터에서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10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부안 지속가능발전 1000인 원탁회의

전북·부안군지속가능발전협, 부안 실현 해결문제 분석 해결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부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3일 부안군 하서면 청호수마을 관광거점센터에서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10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부안군민들의 이야기로 지역의 사회·환경·경제 등 여러 현안과 의제를 찾고 민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거버넌스적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부안군 13개 읍면 주민 100명이 참여했으며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탄소중립, 인구소멸, 에너지지립, 자원순환, 환경보전 등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부안군민들과 논의해 부안의 주요 의제를 선정하는 원탁토론회로 진행됐다.

특히 부안의 현안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의제를 선정해 선정된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발표했다.

송희복 부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환경·경제 등 모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부안군민의 의견을 담은 이번 의제가 부안군정의 주요 정책이 돼 지속가능한 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번 원탁회의 이후 부안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듣고 부안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쌀로 만든 프리미엄 소주, 인기만점

‘느린마을 소주21’,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 3년연속 대상수상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관내 주류 생산업체인 배상면주자고창LB(주)의 ‘느린마을 소주21’이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Korea Wine and Spirits Awards) 시상식에서 프리미엄 소주부문(증류식)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좋은 술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조선비즈에서 개최하는 권위있는 주류 품평회다.

위스키, 스낵릿, 와인, 우리술, 맥주, 소주 등 8개 부문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며 금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18개 업체 총 1061개 브랜드 제품이 출품되어 최고의 우열을 가렸다.

‘느린마을 21소주는 인공감미료 없이 고창쌀, 누룩, 물로만 빚은 느린마을 막걸리를 증류하여 알코올도수 21도로 맞춤 소주로 부드러운 목넘김과 쌀의 은은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